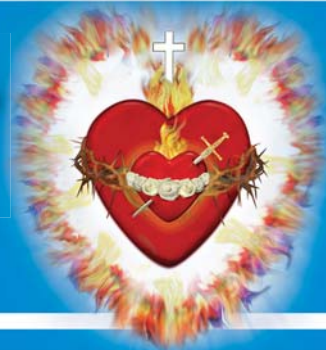




거룩한 사랑

알리는 뉴스레터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발간

거룩한 사랑을 '알려라'의 가을호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선교회의 많은 주제와 다양한 활동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이번 가을호를 특별히 증편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특히 이 나라 - 미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메시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식으로 수록했습니다. 2012년 6월 16 - 17 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과 하나 되신 성심 축일 행사를 게재합니다.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순례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메주고리에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웨인 와이블(Wayne Weible)씨가 2012년 6월 17일 아버지날에 이곳 거룩한 사랑의 성지를 방문했을 때 강연한 그분의 견해도 보도합니다.

미국을 위한 9일기도와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에 대한 광범위한 기사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특히 복되신 어머니의 생신을 여러분과 함께 경축하고 '영적 여정'에 대한 연속 강의 제 7부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해 여러분이 전심으로 받아들이심을 감사하며 이 선교회의 지지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기부금을 환영합니다. 거룩한 사랑을 '널리 알려라'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여러분이 계속해서 (거룩한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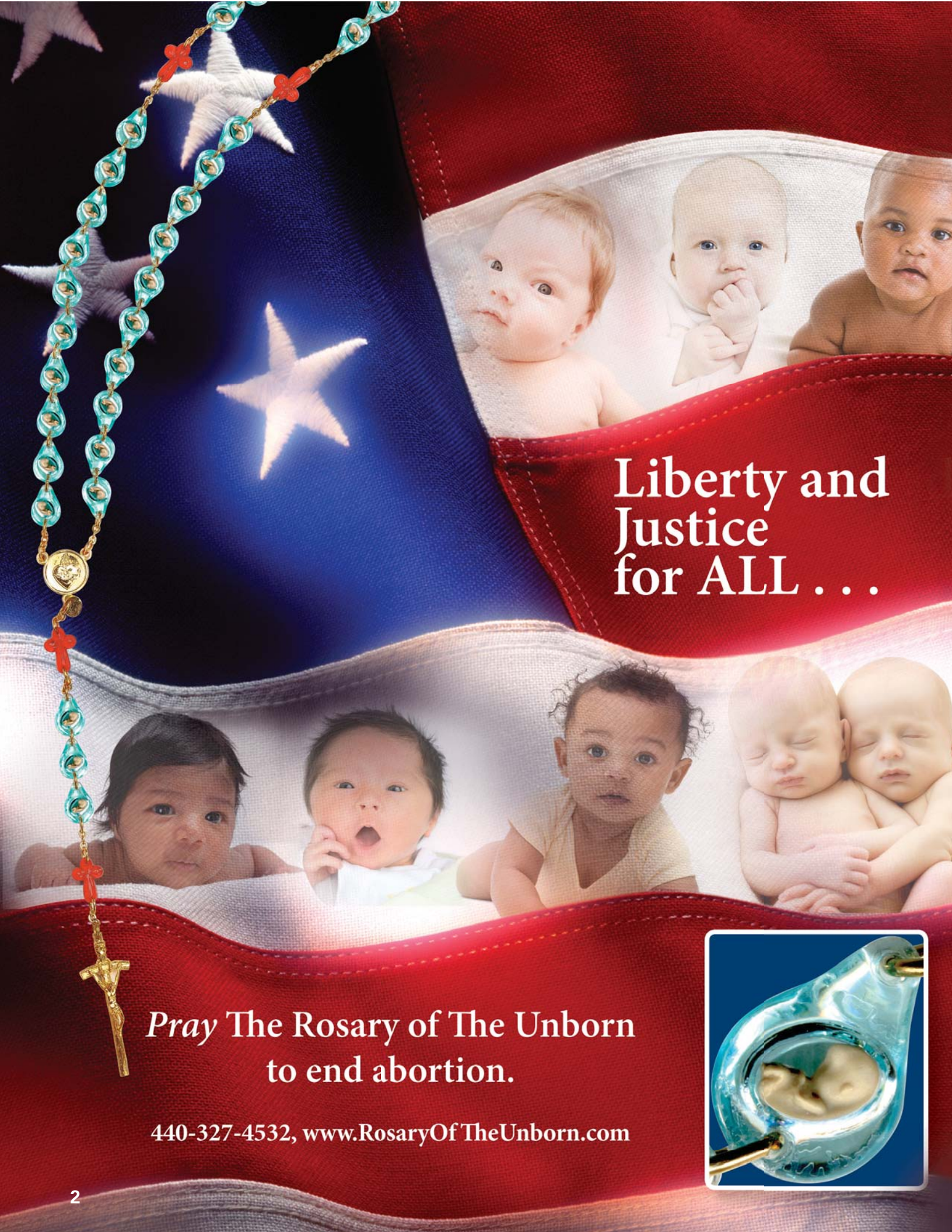
축복을 건네며,
거룩한 사랑을 알려라 뉴스레터 - 편집부

연락처 : newslettereditor@holyllove.org

목 차

티 없으신 성심과 하나 되신 성심 축일	페이지 4
돌아온 성모 마리아 숭배자 강연	페이지 6
미국을 위한 9일기도	페이지 10
하나되신 성심의 자녀회	페이지 16
영적 여정의 길 걷기 시리즈 (제 7부)	페이지 21

2000년 10월 8일 마라나타 샘과 성지를 방문한 순례객이 찍은 사진



Liberty and
Justice
for ALL . . .

*Pray The Rosary of The Unborn
to end abortion.*

440-327-4532, www.RosaryOfTheUnborn.com



낙태에 관한 메시지들

“...만약 너희 나라가 낙태합법화를 폐지한다면, 나는 이 나라를 총애하여 풍성하게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최악이 국가의 승인하에 계속된다면,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예수님 2001년 10월 14일



1997년 8월 10일 둘째 주일 낙태반대를 위한 기도

복되신 어머니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의 모습으로 여기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발치에 50개의 미국의 주들이 쌓여 있고 타버린 재로 남은 것을 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낙태의 무서운 죄를 바꿀 수 있는 이들을 위해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하자.”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낙태는 너희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악이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자 왔다. 오직 모든 사람들과 세계가 이 악을 전복시키면, 너희 나라는 어떤 정해진 죽음으로부터 구원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재난은 아기를 낳는 여인의 해산과도 같이 각각의 재난은 시작되었고 전에 말한 것보다 점점 더 심해진다. 나는 너희에게 이 죽음과 파멸과 생명과 영혼을 잃는 것을 중단시키라고 청하러 왔다. 나는 기도하고 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청하러 왔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해결책이고 승리이다. 그러니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여라. 너희를 축복한다.” ■

2011년 6월 4일

낙태반대 (운동) 묵주기도 지향 - 성모님께서 요청하심

2011년 6월 4일 오후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내 아드님께서는 진심으로 이 태아묵주 기도를 바치는 이들이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을 어루만지게 관대히 허락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인간이 처한 상황에 많은 동정심을 품고 계시기에, 당신께서 오늘 일찍 이렇게 내가
너를 찾아와 묵상재료와 지향 들을 주도록 허락하셨다.”

“첫째 신비 (1단)에서, 나의 보호를 청하면서 기도하여라. 이 기도는 태아들에 대한 나의 모성의 보호다.”

“둘째 신비 (2단)에서, 어머니들이 자신의 태아를 낙태시키지 않도록, 정부 지도자들이 낙태를 반대하도록,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낙태를 거슬러 활동하도록 하는 영감이 내리도록 나의 도움을 간청하여라.”

“셋째 신비 (3단)에서, 영혼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낙태를 여전히 지지한다면 아무도 회개할 수 없거나 또는 그가 회개했다고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신비 (4단)에서, 모든 정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법화된 낙태가 뒤집히는 것이다. 여기에
이 세상의 미래가 달려 있다.”

“다섯째 신비 (5단)에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도록 기도하여라. 낙태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낙태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내 자녀들아, 너희가 진심으로 기도를 바칠 때에, 어머니로서의 내 성심은 이 모든 지향을 위해 중재한다. 나는 너희를 돕기 위한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주 기도하여라.” ■

2012년 8월 13일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고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내가 진실히 너희에게 말한다. 태내에 평화가 없는 한, 세상에 결코 평화가 있을 수 없다. 낙태의 잔학 행위는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정부 관리들을 신중히 선출하여라.”

“오늘밤 나는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축일들

2012년 6월 16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축일

(오늘 오전에 주신 메시지)

거룩한 사랑의 불꽃에 바치는 봉헌기도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겸손되이 청하오니 제 마음을 온 인류의
영적 피신처이신 거룩한 사랑의 불꽃
속으로 인도해 주소서. 저의 잘못과
결점을 헤아리지 마시고 저의 모든
죄악을 이 정화의 불꽃으로 태워 주소서.

사랑하올 어머니,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당신께 내맡기오니,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성화
되도록 도와 주소서. 당신의 크신 뜻
대로 저를 이용하소서. 제가 하느님의
위대하신 영광과 성모님의 승리의
다스림을 위해 이 세상에서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성모님 - 1995년 4월 16일 부활 주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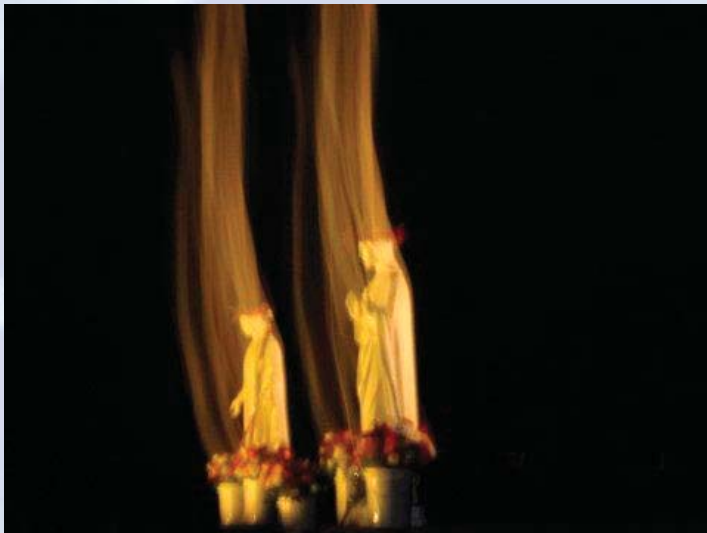
“오늘 나는 거룩한 사랑인 내 성심의 가장 큰 보물을 세상에 준다. 이 보물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어떤 지위나 권력 혹은 재산보다 더 큰 것이다. 이 보물은
언제나 무상으로 얻을 수 있으며, 너희가 지상에 있는 동안 너희에게 보호와 안내,
격려를 준다. 이 보물은 모든 문제를 피해가는 길이며 사탄의 공격을 폭로해 준다.
세상의 마음이 내 티 없이 깨끗한 성심 안에서 피신처를 찾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거룩한 사랑에 바치는 봉헌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모든 이의 마음이 다시금 하느님께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 진리의
실재로 인해 악은 달아날 것이다. 내 성심을 통해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러드는
은총의 진가가 인정될 것이다. 온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통치권은 회복될 것이며
현재를 앞지르고 있는 미래는 모든 사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는 사물의 체제상 하느님의 법규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인류는 여정 동안에 자기 자신의 장애물을 선택하고 있으며 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자신의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나는 너희가 빛의 자녀들로서 이 메시지들을 충실하게 전파하여 산들바람이 신선한
공기를 어디든지 가져다 주듯이 거룩한 사랑을 퍼뜨리도록 너희 각자를 부르고 있다.
천상의 부름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은총이 주어지고 더
많은 회개가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의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언제나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2012년 6월 17일

하나 되신

성심의 축일 - 오후 3시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성지 기도모임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들께서는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오늘 나는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의 계시의 큰 은총을 깨닫도록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초청한다. 영원토록 이 심방들은 실재하며 언제나 있어왔고 언제나 있을 것이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진리를 바꿀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오며 그들 모든 주위에 은총이 있으나 메시지가 단지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귀에만 와 닿는다.” “첫째 심방인 내 어머니 성심은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이 심방은 영혼을 정화시키고 마음을 뉘우치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천상이 베푸는 체험의 실재를 부정할 것이다. 이들은 내 성심의 이어지는 심방들로 결코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잘 채워진 식료품실 앞에 서 있으나 그 문을 열어 자기 몫을 먹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내 성심의 식료품실’ 안에는 너희가 거룩함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총이 있다.” “오늘 나는 너희 각자를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을 통해서 천상 권위자의 보호 아래로 초청하러 왔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아버지의 뜻이다. 반대세력은 아버지 하느님의 신성한 뜻을 결코 바꾸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상본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과 일치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것은 아직 공식으로 선포되지 않은 다섯 번째 마리아 교의의 성화이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거쳐 개인의 거룩함으로 이르게 하는 여정의 지도이다. 이 상본은 내 어머니의 성심을 통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 · 길과 다음으로 이어지는 모든 심방들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 자체를 묘사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오늘 여기서 기도해줘서 고맙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우리의 하나 된 성심과 일치하기를 초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일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완전한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연사 돌아오다

메주고리에 대한 저자 및
연사로 널리 알려진 웨인
와이블(Wayne Weible)

씨가 아버지날인 2012년 6
월 17일에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돌아와서 성지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 마리아
기도센터에서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강연했습니다.

와이블씨는 참가자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는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관중들의 환영에
감동한 그는 “와!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보다 더 나은 표현
방법이 없겠지요? 그렇죠?”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동한
그는 “지금 저는 목이 메입니다”
하고 말했고 관중들은 부드러운
웃음으로 그에게 응답했습니다.

와이블씨는 여러가지 인상적인
이야기들과 그의 통찰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강연에서 나눈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곳 성지가 메주고리에만큼 참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왔습니다. 메주고리를 방문하시는 같은 성모님께서 이곳에
오시며 메주고리에 주어지는 것과 같은 메시지들이 이곳에서
주어지고 메주고리에 주어지는 은총과 똑같은 은총들이 여기서도
주어집니다..”

“이런 현상들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태초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피조물들은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영적인
힘을 상실당한 이 시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분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성모님을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인간이신 어머니를 보내시어 당신 자녀들의 가슴에 대고 성모님께서
직접 말씀하게 하십니다. “

“성모님을 보내시는 목적은 여기 모인 어머니인 여성들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성애의 손길로 자녀들을 어루만져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 아버지날인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들을 완전히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신이
건물을 짓는 벽돌 자체가 되는 창조사업에 참가하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가장 잘 이해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숨쉬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기를 잉태 순간부터 과학적인 용어인 ‘
태아’로 칭하고 단순히 생성과정에 있는 세포 덩어리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예레미아서 1장 5절)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무도
우연의 일치로 여기 살게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화와 완전한
조화, 기쁨 그리고 행복을 사랑 안에서
서로 나누라는 특별한 이유로 이
지상에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평화이며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기도센터에서 바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번 제가 이곳을 방문할 때
마다 저는 똑같이 그것을 느낍니다.
저는 영감을 가득 받게되어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정말로 쏟아내고 싶으며
거의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로 강하게
느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장소를 주시고 천국으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메주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역사를 통해 수백 수천 수만번 일어나 온 것은
우리를 어린애 처럼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느님의 참된 자녀는
성부와의 관계에 완전히 집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제 삶의 어두웠던 시기를 돌아보고 놀랍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눈이 멀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귀머거리일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과학과 교육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에 대한
모든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지했을까 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어떤 생명도 헛되지 않으며 모든 생명은 목적이
있어서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모님께서 매일 태아들을 위해 묵주기도를 하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특별한 주말에 이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하는데 저는 이전에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신교 신자로서 열심히 기도를 하지도 않았습니
다. 제가 처음 묵주기도에 대해 알게되었을 때 저는 이게 무언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똑같은 기도를 계속 되풀이할
수 있을까 의아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그
기도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몇번이나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것이 자꾸 반복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면 그럴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과 통교 방법,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께서는 저를 낙태시키기 위해 애를 썼었고 그 잔인한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없애기 위해 모든 짓을 다했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여기 이렇게 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의 목표는 적어도 매일 한번 태아를 위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저는 고통의 신비를 기도합니다. 저는 가끔 하루에 신비 하나를 기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매일 묵주기도 5단을 바치기로 결심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매일 묵주기도 10단을 바친다는 것이 놀라운 일로 보였지만 곧 그것이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저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요? 우리는 그것을 휴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스포츠를 보거나 혹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하고싶은 일에 시간을 보냅니다. 묵주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5분 정도면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시간을 내게 됩니다. “

“저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종결의 때라고 알려드립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은총에 대한 종결과 메주고리예에서 주어진 모든 은총에 대한 종결, 그리고 교회 역사상 주어진 모든 발현에 대한 종결을 짓는 시기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만약 원하시면 마지막 시대라고 부르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종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해왔으며 오래 지속되어온 삶의 어둠의 시기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를 인식하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곧 그것을 보게될 것입니다. 제가 그 때를 알고 있느냐구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날짜나 시간을 알려준다면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실제로 존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성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와서 그분의 피조물에게 직접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종결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예의 선견자 중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방카(Ivanka)는 메주고리예에서 성모님을 본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16살이었습니다. 한달 반 전에 그녀는

어머니를 급작스런 질병으로 잃었습니다. 이방카의 어머니는 병이 들 것 같지도 않았고 죽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으며 그저 심하게 앓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예를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 이 불쌍한 소녀는 더 참을수가 없어서 성모님께 여쭙어보았습니다. ‘복되신 어머니, 제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성모님께서서는 큰 미소를 지으시며 ‘네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천국에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좋은 엄마였고 아주 착한 아내였으며 진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것 외에 특별히 탁월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이 여인이 지금 천국에 있다는 이 이야기는 메주고리예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방카의 어머니는 두 번 더 성모님과 함께 나타나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아시겠지요? 이방카의 어머니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서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입체의 모습이었으며 어떤 유령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에서 그녀의 어머니에게 일어난 매우 중요한 변화는 더이상 60대가 아닌 33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지금

33살입니다. (청중들 웃음). 저는 더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구도 33살 이상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잃은 아이들도 천국에서는 33세가 될 때까지 자랍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연을 들은 가치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중 다시 33세가 되고 싶은 분이 얼마나 됩니까? 와! 저도 (손을 들고) 원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체 높은 교황 요한 바오로 2께서 선종하셨을 때 바로 그날 메주고리예 선견자인 이반(Ivan)은 뉴햄프셔에 있었습니다. 그는 복되신 성모님께 그날 밤 그가 성모님 발현 현장에 관중들 앞에 있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발현시간이 다가왔을 때 성모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성모님이 오신 몇 분 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빛나는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시며 33세의 날씬한 모습으로 성모님 옆에 오셨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하느님이 진정으로 존재하시며 천국도 참으로 실재하고 사탄이 실제로 존재하며 지옥도 현존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끝을 맺게될 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일 태아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침으로써 이 선물을 성모님께 봉헌하시라고 청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는 장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하느님과 아드님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 모든 일에 연류하게 되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개신교 신자로 미지근한 신자였고, 직업상 언론인이었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말라는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가르치던 주일학교에서 현대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고슬라비아에서 크로아티아 아이들에게 발현하신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메주고리예의 기적에 대해 듣게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반응은 마리아는 살다 돌아가셨으며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발현과 같은 부분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그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 사목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고 루터 교회 남성 위원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저는 진심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상 도움이 되고 이따금 도움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만약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으니 믿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여러분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그 상태를 그대로 넘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면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에서도, 여러분의 운동 경기에서도 현존하실 것입니다. 좀 지나면 여러분이 알게되는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나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면에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만을 하고 싶은 지금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제가 삶을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변화들을 가져오기 위해 해야하는 것들을 겸손을 통해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갑자기 평화롭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에 대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기,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회심에 대한 훌륭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성모님은께서 실제로 이곳에서 계신다는 아름다운 표징이 얼마나 많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진과 광경과 일들을 통해 주어졌습니까? 하느님이 실재하신다는 얼마나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 오셔서 별판 성지와 호숫가를 거닐며 기도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각기 다른 교회에서 왔거나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느님은 모든 종파에서 사랑받으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느끼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메주고리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저는 제가 이곳에 올 때 평화를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곳에 돌아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심을 압니다. 저는 그분의 어머니께서 이곳에서 언제나 계속해서 저를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제 강연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



2012년 7월 8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나는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모두를 똑같이 이곳에서 내 천상의 환대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깨닫게 하기 위해 왔다. 아무도 거룩한 사랑 때문에 거절당하지 않는다.”

“내 티 없이 깨끗한 성심은 믿지 않는 이들, 특히 이 피신처와 이 선교사업에 관한 회의론자와 비판가 들을 초청하는 피신처다. 이 선교사업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성령이신 진리의 영을 불쾌하게 하지 마라. 그분은 너희가 여기에서 받는 은총의 설립자시기 때문이다. 그 은총들은 메시지들과 (마라나타) 샘물에 의한 기적적인 치유, 내 칭호인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의 이름이 붙여진 채플 (성지 기도처) 안에 때때로 나타나는 이미지까지도 포함한다.”

“나는 특히 믿지 않는 이들이 이곳에 와서 내 현존을 느끼고 그들의 회개를 체험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보기를 권한다. 너희 자신이 너무 교양 있고, 너무 지능이 높거나 혹은 여기에서의 천상의 부름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들은 사탄의 설득이다. 순종에 얽매어 이곳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믿지 마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나는 너희를 초대하고 너희를 부르면서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내 메신저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믿지 마라. 너희는 그 진실을 모른다. 인신 공격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천상의 어머니인 내게로 오너라.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

사랑의 풍선

필라델피아에서 온 순례 그룹이 아버지의 날이 하나 되신 성심의 축일, 2012년 6월 17일과 겹쳤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그분께 보여 드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위해 작은 깜짝 파티가 바람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 되신 성심 축일에 순례 버스들이 성지에 도착하자마자 순례자들은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한살부터 15살까지의 아이들 각자는 “아버지의 날을 축하합니다”라고 쓰인 풍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례자들은 눈물의 호수로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성모님 성지에서 그들은 어린이들을 그들의 부모와 함께 모으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 되신 성심과 영원하신 아버지께 자신들을 봉헌했습니다. 봉헌이 끝나자 모두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께 “아버지의 날을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러드린 후 사랑과 깊은 감회의 끈이 묶여진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모두가 사랑의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심으로 사라지는 것을 큰 기쁨과 들뜬 기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분께 알려드리는 경사였습니다. ■





미국을 위한 9일 기도

(“이 9일기도는 매년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바쳐야 하며 매일 바칠 수도 있다”)

2012년 5월 29일 / 대중을 위한 메시지

성 미카엘 대천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를 알아보겠지요? 나는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필요에 따라 다시금 나를 보내십니다. 나는 진리의 옹호자로서, 여러분 나라에서 법률화된 것들의 모순을 지적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태중 생명이나 낙태 중의 어느 하나를 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을 들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양심에 저촉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산아 제한이나 낙태를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만약 양심이 낙태나 산아 제한을 지지하여 명령(지시)할 수 있다면 왜 마찬가지로 반대하여 명령할 수 없습니까?”

“사실, 여러분의 권리는 타협된 정치인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조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6월 26일에 시작해서 여러분의 독립 기념일인 7월 4일에 끝나는 (연속) 9일 기도를 받아쓰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일 기도를 널리 퍼뜨리고 이 기도 활동 안에서 일치하십시오.”

“이제, 구일 기도 동안 매일 바치는 기도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시 방문할 때에 매일 기도문을 주겠습니다.”

“사랑하옵 예수님, 거룩한 사랑의 진리가 이 나라(미국)의 마음에 넘치게 하소서. 각 마음마다 다 진리를 품게 하소서. 이 나라를 하느님의 통치 아래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보내주소서. 아멘.”

나날의 기도문

“사랑하옵 예수님, 거룩한 사랑의 진리가 이 나라(미국)의 마음에 넘치게 하소서. 각 마음마다 다 진리를 품게 하소서. 이 나라를 하느님의 통치 아래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보내주소서. 아멘.”

첫째 날. “생명에 관한 법률들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

“사랑하옵 예수님, 입법부 (국회) 의원들이 모든 법에 공정을 가져오도록 그들의 마음에 영감을 주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입법자들이 태중 생명에 관한 법에서 모순을 제거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무도 그의 자유의지에 거슬러 피임이나 낙태를 지지하도록 강요되지 않게 하소서. 종교의 자유가 태아 살해를 지지하는 자들의 발밑에 짓밟히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매일 기도문 암송)

둘째 날. “종교 단체들에 적합한 양심의 자유를 위한 기도.”

“사랑하옵 예수님, 저희는 모든 종교 단체들에 관해서 당신의 보호를 간구하나이다. 자유에 기초를 둔 이 나라에서, 아무도 말로 표현하는 그들의 의견이나 실천적으로 믿는 그들의 신앙에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든 특권이 주어지지만 그리스도교인들은 억눌리는, 역차별을 경계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아멘.”

(매일 기도문 암송)

셋째 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행로에 관해 진실을 깨닫기 위한 기도.”

“사랑하옵 예수님, 이 나라 국민들이 이 나라가 취하고 있는 방향의 진실을 깨닫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정부가 서서히 개인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민의(民意)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하소서. 이 나라가 기초를 두고 세웠던 금지와

독립의 본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매일 기도문 암송)

넷째 날. “어떤 형태든 독재를 반대하는 기도에서 일치성을 위한 기도.”

“사랑하옵 예수님, 어떤 형태의 독재이든 그것에 맞서 기도하도록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일치시켜 주소서. 이 자유 국가의 국민들이 헌법이 짓밟히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게 하지 마소서. 단일 세계 정부를 조장하는 이런 행위들의 숨은 의도를 알아보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소서. 주님, 모든 마음이 진리 안에서 일치하기를 기원하나이다. 아멘.”

(매일 기도문 암송)

다섯째 날. “이 나라의 모든 정책 결정에서 악의 길에 반대하여 선의 길이 분명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

“사랑하옵 예수님, 선과 악을 분간하도록 이 나라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 야심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월권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소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악을 묵인하고 하느님의 계명들을 무시하는 의향을 없애주소서. 아멘.”

(매일 기도문 암송)

여섯째 날. “사탄이 경제를 통해 지배권을 잡으려는 노력에서 무력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

“사랑하옵 예수님, 저희는 경제 악화를 통해 이 나라를 약화시키려는 사탄의 공격에서

그자의 수단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 즉, 단일 세계 정부가 모두에게 더 받아들여지는 듯 합니다. 경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것임을 이 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이해시켜 주소서. 정부의 보조금은 무료가 아니라 자립을 포기함으로써 지불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게 하소서. 아멘.”

(매일 기도문 암송)

일곱째 날. “죄가 더 이상 권리로서 규정되지 않고 법으로 지지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

“사랑하옵 예수님, 이 나라의 마음이 거룩한 사랑 캡슐에 싸인 하느님의 계명들을 정당히 지지하게 하소서. 이 노력으로 완강히 생명을 옹호해 주시고, 남녀간 결혼의 전통도 지켜 주소서. 죄를 정치적인 문제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사탄과 악수를 하면서 악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모든 법이 하느님의 계명들을 지지하게 하시어 이 위대한 국가의 중추를 강화시켜 주소서. 아멘.”

(매일 기도문 암송)

여덟째 날. “진리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변화를 재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대담해지기를 바라는 기도.”

“사랑하옵 예수님, 사람들이 진리를 지지하기 위해 대담하게 노력할 때에, 모든 마음에 진리의 방패를 씌워주소서. 이 지대한 노력으로 모든 정부 조치와 모든 법률상의 결정에서 정의를 향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소서. 아멘.”

(매일 기도문 암송)

아홉째 날. “최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안에 진리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기를 바라는 기도:

• “대통령

• **대법원 판사들**
•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들**
• **임명된 관리들.”**

“사랑하옵 예수님, 공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승리를 불어넣어 주소서. 진리의 타협이나 어떠한 모순도 법의 일부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노력으로 모든 국민의 권리와 자립을 유지시켜 주소서.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큰 영향력의 공직에 있는 사람들 즉, 대통령, 국회 (의원들), 대법원 판사들과 임명된 관리들을 격려하소서. 아멘.”

(매일 기도문 암송)

9일 기도는 성 미카엘 대천사가 2012년 5월 29일 부터 31일 사이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 스케치는 모린 스위니 카일이 한 것임.

2012년 1월 22일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찬미.”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수난의 피가 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재선 사이에 현존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순결한 생명들이 그의 정책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8년 5월 25일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고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너희가 너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진리를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왜냐하면 정치가들과 정부 지도자들이 진리를 반대한다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모든 민족들과 모든 나라들 사이에 평화와 일치를 추진할 수 없다. 거룩한 사랑이 바로 진리이다.”
“오늘 나는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으로 너희에게 강복한다.”

2012년 6월 25일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고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다가오는 근간에 너희 정부 지도자들의 마음이 진리에 잠기도록 기도하여라. 오직 진리 안에 사는 이들과만 역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거룩한 사랑과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정부가 거룩한 사랑에 기초를 두기 바란다.”
“오늘밤 나는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너희들의 자유를 위해 진리안에 서라

“내 형제자매들아, 이 나라 (미국)은 독립과 종교의 자유 위에 세워졌다. 너희는 국민으로부터 자유를 빼앗아가는 일에 수완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높은 공직에 선출되게 해서는 안된다. 일단 독립을 포기하기만 하면 되찾기 어렵다.”

예수님 - 2012년 7월 2일

미국에 적용되는 메시지들

2005년 9월 2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이다.”

“오늘 나는 많은 것에 대해 말하기 위하여 왔다. 이달 5일 전이지만, 나는 너희 나라에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예수님께서 모린에게 매월 5일에 오시어 모든 나라를 위한 메시지를 주심]

“나의 형제자매들아, 너희들이 최근 허리케인의 참혹한 파괴를 극복하고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너희를 가엾게 여긴다. 결백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내 경고를 계속 받은 죄인들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란 바로, 동성애와 음란한 행위와 낙태를 통하여 순결한 아이들의 살인을 묵인하는 이들, 그리고 십계명을 저버리는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나라의 윤리도덕이 타락되었다. 하느님은 학교와 공공 장소에서 쫓겨났다. 그러므로 이 나라 백성의 파괴된 마음이 많은 죄를 범한 지역의 물리적인 파괴를 초래하였다.”

“복구를 시작하면서 너희 나라의 윤리도덕도 다시 세워라. 이 재앙의 사실상의 원인을 간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하느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소돔과 고모라를 보아라. 니네바에서 요나의 경고를 듣고 보여준 백성들의 반응으로부터 깨닫고 배워라. 왕까지도 굶은 벼룩과 재를 입었다. 내 아버지는 이것을 보시고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셨다. 이를 듣고 배워라.”

“나는 그냥 할 일없이 서서 너희들이 고통 당하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역시 너희들과 함께 고통을 겪는다. 너희들이 희생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듣는다. 너희와 함께 슬퍼하며,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을 보고 기뻐한다.” ■

2008년 11월 24일 / 성 미카엘 대천사의 진리의 방패 월요 기도 모임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고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나 역시 너희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번 대통령 당선자는 너희 나라가 도덕적으로 더욱 타락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 나라의 민심이 거룩한 사랑으로 회개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풍요롭게 될 것이다.”

“내 형제자매들아, 오늘밤 나는 너희 나라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며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2009년 8월 9일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고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항상 진리 즉, 거룩한 사랑 안에 살아라. 그것이 구원과 개인의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모든 이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닌 법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거짓말을 따르는 정치인들에 의해 입법화되는 것이다. 이런 법들을 지지하지 마라.”

“거룩한 사랑이 진리이고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여라.”

“나는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2010년 6월 5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너희 나라 해안의 원유 유출 사태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러 왔다. 바다는 돌이킬 수 없이 오염된 듯 보인다. 죄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계가 사라져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죄로 오염되어 온 너희 나라의 마음 때문이다. 낙태되는 순결한 생명을 태중에서 앗아간다. 훌륭한 지도자들이 태중에서 살해되어 왔고 이렇게 계속 희생되고 있다. 너희 나라는 피할 수도 있었을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나라의 독립성을 희생하여 왔다. 그 대신, 오염된 마음이 너희 나라를 진로에서 벗어나게 이끌었다.”

“멕시코만의 오염이 너희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하느님께서 깨끗한 상태로 너희 나라에 주신 것이 이제 잘못으로 인해 크게 위태롭게 된다. 너희 나라에서, ‘하느님 보호 아래’ 세워졌던 것이 이제 거룩한

사랑에 거스르는 인간의 선택으로 위태롭게 된다.”

“하느님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려는 너희 나라의 시도는 성공하거나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 그 대신, 하느님께서는 한때 위대했던 이 나라를 계속 약화시키실 것이다.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위한 안식처로서 세워졌지만 이제는 죄의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다.”

“진리 안에 사는 남은 신자들은 굴하지 않고 기도와 희생을 계속해야 한다. 나는 파괴가 아니라 구원을 바란다. 나는 너희의 멸망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바란다.”

“이 메시지를 알려라.” ■

2011년 8월 23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너희 나라 [미국]의 수도 가까이에서 일어난 지진은 너희 나라의 토대 자체가 현 행정부의 정책들에 의해서 흔들려 왔음을 세상에 신호하는 것이다. 진리는 짓밟혀 왔고 시민들의 권리는 무시되어 왔다.” ■

2012년 2월 7일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여러분의 나라 (미국)이 또 하나의 선거의 해를 맞이함으로, 천상은 현명한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 현명한 지도자 즉, 자신이 다스리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잘 되기를 원하는 지도자,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어버이다운 지도자를 선출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리사욕과 숨은 의도로 가득찬 불성실한 정치인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타입 (유형 類型)의 지도자는 국민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리(私利) 추구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현재 국내와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 없이 이 나라를 다스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

2012년 6월 1일

성 미카엘 대천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나는 여러분 각자가 진리의 애국자가 되도록 격려합니다. 이 애국자의 동료 의식 안에서, 어떤 정치인을 한 가지 문제뿐 아니라 거룩한 사랑에 기초한 진리에 그가 얼마나 충실한지도 보고 지지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나라들이 번영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리하여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 오늘날 사탄은 이 완전한 해결책에서 영혼들을 끌어내기 위해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의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죄가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를 바란다면 이 도덕적 문제들을 법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도덕적 타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인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나라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며 정의의 손이 그 나라 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

2012년 6월 13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내 거룩한 성심의 고통을 부디 이해하여라. 너희 나라 (미국)은 양심의 문제를 법적 문제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죄의 합법화는 죄의 심각한 문제를 받아들이 수 있고 그리고 내 눈에 더 이상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너희 미국 정부는 국민들을 의로움의 길로 이끄는 대신에 그들을 계명들로부터 멀리, 내 아버지의 뜻에서 멀리, 그리고 방탕의 어둠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나는 니네베 사람들에게 회개를 부르짖는

요나로서 너희에게 왔다.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고, 그리하여 진노의 손은 거두어졌다. 여기에서도 그럴 것인가?” ■

2012년 6월 24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언제나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할 때 어떤 이유에서든 진리를 억누를 수 없다. 만약 어떤 권력자가 너희가 선포하는 진리를 막아 침묵시키려고 할지라도, 너희는 끝까지 진리의 빛을 위해 맞서면서 옹호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

2012년 6월 25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어떤 법이나 이와 같은 법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조심해야 한다.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양심의 자유는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 주신 권리라는 것을 이해하여라.”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된다. 이런 자유들이 나치 당원들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내 자녀들에게서 빼앗겼던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배워라. 이 중대한 문제에 관해 너희 마음이 타협되지 않게 하여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너희 나라의 마음이 타협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마음까지도 타협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종교의 자유에 충실한 지지자가 되어라. 한 가지 자유의 상실은 더욱 더 많은 자유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그렇게 되면, 한때 민주주의 국가였던 것이 독재 국가가 된다.” ■

메시지 다음 페이지에 계속

2012년 6월 26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승리는 언제나, 항상 거룩한 사랑에 근거하여 결정이 내려질 때,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또한 세상 안에 다다른다. 이렇게 하여 내 아버지의 뜻이 세상에서 활기를 보이신다.”

“그래서 너희는 사탄의 공격이 거의 확실히 어디에 위치하는 지를 알게 된다. 사탄의 공격은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서 약해지고 있는 거룩한 사랑에 있다. 그때에 너희 구원의 원수 (사탄)은 분열과 탐욕과 비뚤어진 의견을 불러들인다. 이 위태롭게 된 상태에서 영혼들은 설득되어 하느님께서 주신 권리와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가 폭력 행위 없이 이처럼 공격을 받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은유함과 유순함으로 사탄의 계획에 협력하지 마라. 언제나 거룩한 사랑, 곧 의로움에 확고히 서라. 대담하게 진리를 옹호하여라. 악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기 위해 진리의 빛이 너희와 주위를 두루 환하게 비추게 하여라. 원수가 그자가 좋아하는 어둠을 틈타게 하지 마라.”

“진리는 너희의 무기다. 진리는 거룩한 사랑이다.” ■

2012년 6월 27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자유의 정의 · 의미 중의 하나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선택하는 권리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왔다. 이것이 내가 사람들의 양심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 형성하고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이유다. 너희의 자유는 오직 너희가 자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할 때만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일은 너희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원하는 한 정치인에게 너희의 희망과 신뢰를 둘 때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유권자가 되지 마라. 각 입후보자의 이력을 살펴보아라.

그들이 진실로 헌법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헌법을 발로 짓밟느냐? 일치를 말하고 있지만 한 그룹을 다른 그룹에 대항시키면서 분열을 조장하느냐? 그들은 모든 이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그들 마음속에 품거나 아니면 단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그들 자신의 이익만을 그들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자신의 선거구 주민들을 돕는 일에 성공하였거나 아니면 법을 이용해 자신이 돕겠다고 주장한 이 나라를 약화시켰느냐? 그들은 솔직하게 그리고 진실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이를 추축하게 방치하면서 그들의 활동이 어둠을 틈타 감추어져 있느냐?”

“거룩한 사랑은 진리의 실현이며 모든 계명들의 구현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메시지들은 세상의 양심을 고쳐 만들고 하느님께서 모든 마음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절박하게 이 선교사업, 곧 이 메시지들과 세상의 마음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 된 성심에 봉헌되는 것을 요구한다.”

“이것을 알리라.” ■

2012년 6월 28일

(이 메시지는 오바마 케어, 오바마의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안 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발표되기 직전에 주어졌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내가 말하지만, 너희 나라는 자유를 누리는 한 그만큼 존재할 것이다. 너희 나라는 하느님의 신성한 뜻과 일치하는 한 그만큼 자유를 누릴 것이다. 너희 나라는 오로지 하느님께서 주신 권리들이 보호되고 유지될 때만 하느님의 신성한 뜻과 일치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거룩한 사랑에 근거를 둔 단순화한 생활 방식의 유산을

인류에게 주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의 뜻과는 별도로, 세속적으로 세련되기를 시도함에 따라 삶의 모든 면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현대 형태의 기술은 거룩한 사랑을 통해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종말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기술은 하느님의 뜻에 걸맞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신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거룩함에 이르는 목표는 애매해졌다는 것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구원을 추구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자유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사라지고 있다.”

“또다시 나는 지도자들이 너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주목하도록 설득시키기 위해 왔다.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듣기 좋은 말 뒤에 숨겨진 개인의 안전을 알고 있어라. 지혜를 위해 기도하여라.” ■

2012년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축일

베드로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요즈음 직함과 권위가 진리를 반대하기 위해 행사되고 있습니다. 나는 권력을 가진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지지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나는 천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이 선교사업을 따르는 이들을 장애물을 피해 그들 자신의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권리들이 보호되고 참된 민주주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모든 정부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한때 위대했던 이 나라의 국민들이 워싱턴에서 드러나지 않게 활동하는 악의 영향을 알아본다면, 11월에 선거가 아니라 악에 대항하는 선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진리가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제시되어야 할 순간입니다.” ■

2012년 7월 1일

즈카르야 (천사)가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진실을 말하지 않는 정치인은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한 가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부도덕한 행동은 또 다른 하나의 부도덕한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정치에는 아무 숨김도, 숨은 의도가 조금도 없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각자 의로움 안에서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이 나라는 어느 한 그룹을 뽑아내어 박해하지 않는 나라로서, 참된 민주주의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다음의 대통령이 다만 정치인뿐이 아닌 지도자이기를 기도하십시오. 지도자는 민주주의를 옹호할 것입니다. 그의 지도력은 이 나라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킬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시민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결시킬 것입니다.”

“자유 세계의 지도자로서 그의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존중심을 요구할 것이며 이 나라를 단일 세계 질서*로 끌어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 또한 단일 세계 정부 (세계단일정부) 혹은 새로운 세계 질서 (신세계질서)로 알려져있습니다.**

주석: 복되신 어머니께서 지난 목요일에 즈카르야 천사를 제게 (모린) 소개하셨습니다. 즈카르야 천사는 미국의 (수호)천사이며 역품(力品) 천사단 (제5품 천사단)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2012년 7월 4일

“나는 여러분 나라의 수호천사인 즈카르야 입니다. 찬미 예수님.” “여러분 나라의 독립을 기념하는 오늘, 나는 여러분 나라가 독립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엄숙히 알려주기 위해 왔습니다.” “천상의 영감을 받은 헌법이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위반되고 있습니다. 법은 죄와 방탕조차도 지지하기 위해 왜곡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대통령은 헌법이나 양심의 자유를 믿지 않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한

낙태와 산아제한의 장려에 관해서 양심의 자유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는 사실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독재 정권 아래로 움켜쥐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성가시게 권유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라는 독립국가로서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의 이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참된 독립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

2012년 7월 16일

카르멜 산의 성모님 축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다시 한번 나는 너희 나라가 그리스도교적 가치로 되돌아오기를 청하러 왔다. 너희의 지도자들과 입법부 의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는 한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요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타락이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계급투쟁을 조장하거나 기도를 반대하거나 독립심을 약화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따르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너희 구원의 원수인 사탄에게서 온다. 너희는 단일 세계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서는 안된다.”

“단일 세계 질서를 조장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에게 맞서라.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워라. 너희 나라가 근거를 두고 세워진 이 종교의 자유는 그동안 버림받아 왔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마음에 새겨라.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하기 위한 용기를 갖도록 기도한다. 너희의 장래는 걱정 마라.” ■

2012년 7월 16일

예수님께서 성심을 드러내시고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하루에 종종 너희 마음을 기도에 맡김으로써 지금 이 순간을 거룩하게 하여라. 기도를 통해서 자유의지로 내리는 결정들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하여 너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오늘밤 나는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2012년 7월 23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알라너스는* 너에게 작지만 중요한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 천사들은 언제나 각 개인을 도우려고 하며 또 자주 돕는다. 그러나 그들은 도움을 요청 받을 때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 이때 천사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 위해 뒤에서 조용히 일한다.”

“천사들은 소규모로 일할 뿐 아니라 의미심장한 방법으로 일하기도 한다. 너희는 정치인들과 온 정부 기구들의 천사들에게 즉시 기도할 수 있다. 너희 나라의 의회와 대법원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의회를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천사는 ‘콘스탄트’이다. 대법원을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천사는 ‘마이카 (미카)’이다.”

“이 천사들의 영향이 효과가 있도록 기도하여라.”

***주: 알라너스는 모린의 수호천사 입니다. ■**

2012년 8월 23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은 태중 생명을 항상 옹호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부디 이해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두 정당 입후보자들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낙태를 반대하는 입후보자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낙태를 반대하는 이 입후보자가 너희가 동의하지 않는 다른 문제들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를 지지해야 한다. 비록 그 입후보자의 개인 성격에서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 특질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를 지지해야 한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태중 생명에 대한 싸움이 이겨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모태는 너희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전쟁터다.”

“이것을 알려라. ■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들은 무엇인가?

하나 되신 성심에 헌신하는 모든 평신도 영혼들의 연합으로 복되신 성모님에 의해 2012년 3월4일 세상의 마음을 하나 되신 성심께 봉헌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2012년 3월 4일 –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들 이라고 불려질 한 협회가 정식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거룩한 사랑을 통하여 모든 이들의 마음 안에 평화와 갯들기를 지향하며 기도하기 위해 세계 모든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모일 것이다. 우리는 일년 내내 불규칙하게 이곳 성지에서 만날 것이다. 바라건대 각 단체에서 적어도 한 명의 대표가 참석할 것이다. 날짜는 정해진 축일들과 일치할 것이다.” ■

2012년 3월 4일 –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자녀들과 일치하기를 바라며, 이 자녀들이 기도 안에서 일치하는 것을 항상 바란다. 거룩한 사랑을 통하여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화와 내 아버지의 뜻과의 영적인 일치를 이루는 같은 목표를 지향하자.” ■

2012년 3월 5일 –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들의 협회 설립을 기다리는 것이 기쁘다. 이 협회는 오랫동안 우리의 하나 된 성심 안에 존재해 왔다. 반대의 어떤 조짐이라도 너희에게 그것이 중요하다는 표징이라고 가정하여라.” ■

2012년 3월 9일 –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들 (협회)에 대하여 추가 지도를 권하기 위해 왔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가 함께 하도록 가르쳐 준 대로 기도 안에서 일치하여라. 세상의 마음이 아버지 하느님의 뜻과 영적으로 일치하도록 기도하여라. 너희 가운데에는 야망이나 시샘,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세계적이고 최선의 기도 노력 (활동)이 되어야 한다. 어떤 승인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전례 없이 바로 기도하여라. 다른 이들을 이 노력 안으로 그리고 거룩한 사랑의 진리에 봉헌된 삶으로 끌어드려라. 하느님께서

니네베에서 하셨던 것처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요나서 3장) ■

2012년 3월 16 –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자매들아, 너희는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자녀들로서 너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신성한 사랑이 너희 삶에서 반영되게 하여라. 따라서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하나 된 성심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더 많은 영혼들을 남은 신자들로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은 남은 신자들의 신성한 피신처이기 때문이다.” ■

2012년 3월 18일 –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 된 성심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는 말 그대로 우리의 하나 된 성심에 대한 신심을 갖고 있는 나의 모든 자녀들이라는 것을 부디 이해하여라. 이 부름의 목적을 수많은 형식적인 조항들 때문에 제발 약화시키지 마라. 이 형식적인 조항들 안에는 인류가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영적으로 일치하기 위한 기도의 주요 초점이 아무래도 등한시 되어 있다.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 어떤 하나의 체제도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간부들’ 혹은 안내서도 필요하지 않다. 함께 기도하고 혼연일치하여라. 대표자는 누구든지 이 기도 모임들 중 한 모임을 대표해서 오는 사람이다. 인정이나 중요한 지위를 기대하지 마라. 다만 기도 용사가 되어라.” ■

2012년 5월 10일 –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정치적인 선택이 되어 온 요즘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의 하나 된 성심에 봉헌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 봉헌으로써 영혼이 거룩한 삶을 살고 오직 거룩한 진리만을 지지하기를 결심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마음을 우리의 하나 된 성심에 봉헌하는 기도문을 곧 지시하겠다.* 이 봉헌을 바치는 영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상의 마음이 진리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것은 최후의 환난이 재촉 (촉진)

되기에 앞서서 요즘 같은 시대에 중요한 노력 (시도)이다.” ■

*하나 되신 성심의 공동체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마음을 하나 되신 성심께 바치는 이 봉헌기도(문)을 전 세계에 퍼뜨림의 중요성에 유의하십시오.

2012년 5월 10일 –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이것은 내가 세상에 주는 어머니 날 선물, 세상의 마음을 하나 되신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이다.” ■

“세상의 마음을 하나 되신 성심에 바치는 봉헌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인자하시고 하나 되신 성심과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세상의 마음을 위하여 바치는 저의 이 기도를 받아주소서. 세상의 마음이 선과 악의 차이를 분별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각 영혼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하나 되신 성심께 봉헌하도록 격려해 주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봉헌의 결심으로 세상의 마음을 강화시켜 주소서.”

“사랑하옵 하나 되신 성심이시여, 간청하오니, 당신의 영감의 은총을 세상의 마음속에 부어주시어 세상의 마음을 진리와 거룩한 사랑 안으로 강화시켜 주소서. 이 천상의 영감으로, 세상의 마음을 하느님의 뜻과의 일치로 이끄소서. 아멘.”

2012년 6월 7일 –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언급하는 ‘세상의 마음’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왔다. ‘세상의 마음’은 잉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살아있는 영혼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 말은 태종의 모든 생명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 모든 정치인들과 정부 지도자들, 모든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포함한다. 실은, 너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다. 이것이 천상이 너무나 자주 '세상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라고 너희에게 부탁하는 이유다." ■

2012년 6월 21일 –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들 (공동체)의 여러그룹 대표들이 8월 4일과 5일의 주말에 이곳 성지에서 모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부디 알려라. 이것은 이 평신도 조직체의 첫 번째 모임이 될 것이다.” ■

2012년 6월 27일 –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사랑은 진리의 실현이며 모든 계명들의 구현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메시지들은 세상의 양심을 고쳐 만들고 하느님께서 모든 마음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절박하게 이 선교사업, 곧 이 메시지들의 전파와 세상의 마음을 포함한 모든 마음이 우리의 하나 된 성심에 봉헌되는것을 요구한다.” ■

2012년 7월 4일 –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 된 성심의 자녀들이 따라야 할, 소위 말하자면, 하나의 규칙이 있다. 즉 너희는 ‘세상의 마음을 하나 되신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그리고 ‘하나 되신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를 매일 되풀이하여 바쳐라.” ■

2012년 7월 20일 –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오늘 너희 각자와 모두를 마음의 일치로 부르고 있다. 한 지성과 한 심정이 되어라. 내 아드님의 재림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영혼들의 회개를 지향하여 노력하여라. 이것이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서 세상의 마음이 우리의 하나 된 성심에 봉헌하기를 청하고 있는 이유다. 이 봉헌은 남은 신자들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며 앞으로 닥칠 상황에서 그들을 강화시킬 것이다. 많은 경우에, 이 봉헌은 오늘날 사탄이 사회 조직에 엮어 넣은 거짓말을 풀어내어 밝힐 것이다. 파티마에서

나의 요청은 러시아의 회개였다. 그러나 오늘날 필요한 것은 세계적인 마음의 회개다. 세계 정부가 그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늘날 세상은 인간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영적인 해결책 즉, 마음의 영적 교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오고 있는 것이다. 나는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을 통한 세상의 마음의 영적 쇄신을 추구한다.” ■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2장 1-4절을 읽으십시오.

필리 2:1-4 [일치와 겸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로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성경)

***주석: 영적 교정은 참회 (마음의 뉘우침)과 회개를 말합니다.**

2012년 8월 2일 –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이 기도 즉, 세상의 마음을 하나 된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은총을 쏟아 놓으신다. 따라서 영혼들은 그들의 사악한 행실을 뉘우치게 되고 개인의 거룩함에 끌리게 된다. 이런 은총들의 뜻을 따르는 모든 영혼은 남은 신자들을 강화시킨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은 한 영혼의 회개에 의해서 영원히 약화된다. 그러므로, 사탄이 이 봉헌기도의 암송과 전파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모든 악의 공격에 맞서는 거룩한 담대함의 은총을 위해 기도하여라. 이 봉헌기도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인내하여라.” ■

2012년 8월 3일 –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자매들아, 이번 주말과 이곳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이 지상에 베푸는 내 자비의

일부라는 것을 부디 이해하여라. 너희의 모든 기도와 희생이 내 은총과 결합되어 이 일이 가능해졌다. 어떤 기도나 어떤 희생도 너무 작거나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의 하나 된 성심에 바치는 이 봉헌 기도가 널리 전파되도록 너희가 계속 기도하기를 권한다.” ■

2012년 8월 5일 –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 오늘 너희와 함께 해서 기쁘다. 나는 너희가 이번 주말에 여기에 오라는 내 초대를 받아들여서 기쁘다.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 된 성심의 (자녀 공동체의) 대표가 되라는 내 초대를 부디 받아들여라.” ■

2012년 8월 8일 –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 된 성심의 자녀들 구성의 유일한 목적을 되풀이해 말하기 위해 왔다. 그 목적은 하나 된 성심께 세상의 마음을 봉헌하는 것이다. 이 봉헌은 기도와 희생과 단식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남은 신자들이 강화되고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밖의 어떤 것도 너희의 주의를 돌리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가 받는 부름은 세상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이 승리하도록 기도와 희생과 단식으로 겸손하게 응답하는 태도이다.” ■

2012년 8월 8일 –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나는 하나 된 성심의 짧은 묵주기도를 하나 된 성심의 자녀들의 매일기도 계획의 한 부분이 되게 하라고 청하러 왔다. 그 기도의 지향은 세상의 마음에서 하나 된 성심의 승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2012년 8월 9일 –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 된 성심께 바치는 봉헌으로 세상의 마음은 하느님 앞에 서는 그의 위치에 대한 진실을 깨닫으려고 시도한다. 모든 영혼은 마지막 심판 때 이 진실을 깨닫게 되며 그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사탄이 이처럼 많은 추종자들을 피어내는 데 성공하는 이유는 영혼들이 하느님의 눈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에 대한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 봉헌은 진리의 확신을 수반한다.” ■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들의 매일 기도

하나 되신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지극히 훌륭하신 하나 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이시여, 오늘 저는 제 자신을 기꺼이 당신께 봉헌하나이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제 삶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 되신 성심을 끝없이 찬양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 순간의 승리와 실패를 당신 성심으로 가져가시고 필요하신 대로 쓰시어 당신의 승리가 하루 속히 임하게 하소서. 아멘.” (복되신 어머니 - 1996)

세상의 마음을 하나 되신 성심께 봉헌하는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인자하시고 하나 되신 성심과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세상의 마음을 위하여 바치는 저의 이 기도를 받아주소서. 세상의 마음이 선과 악의 차이를 분별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각 영혼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하나 되신 성심께 봉헌하도록 격려해 주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봉헌의 결심으로 세상의 마음을 강화시켜 주소서.”

“사랑하올 하나 되신 성심이시여, 간청하오니, 당신의 영감의 은총을 세상의 마음속에 부어주시어 세상의 마음을 진리와 거룩한 사랑 안으로 강화시켜 주소서. 이 천상의 영감으로, 세상의 마음을 하느님의 뜻과의 일치로 이끄소서. 아멘.”

(복되신 어머니 - 2012년 5월 10일)

하나 되신 성심의 짧은 묵주기도

제1단. 신성하신 예수 성심을 공경하며 묵상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성심이 얼마나 심오하며 완전한지를 나의 자녀들이 깨닫기 바란다. 완전한 사랑과 자비와 진리의 이 그릇 안으로 이끌려 들어 가거라. 그분 성심의 불꽃이 너희를 태워서, 거룩한 성삼위와 하나되는 절정으로 너희를 이끄시도록 하여라. 예수님께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예수님,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에 대한 신심을 통하여, 내 자녀들에게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내려주소서.” (복되신 어머니 - 1998년 2월 7일)

주님의 기도, 성모송 3번

제2단.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을 공경하며 묵상합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이시여, 당신께서는 지극히 순결한 은총의 그릇이요, 참된 거룩함, 그리고 계시의 상징이십니다. 마리아님, 당신의 성심은 거룩한 사랑의 피산처이시며 사악한 시대에 맞서는 표징이십니다. 사랑하올 성모 성심이시여, 이 세상의 회개와 평가가 당신께 달려 있사오니, 오직 거룩한 사랑을 통하여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심이 수많은 칼에 찔리셨듯이 저희의 마음을 거룩한 사랑의 불타는 화살로 찔러 주소서.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복되신 어머니 - 1998년 3월 7일)

주님의 기도, 성모송 3번

제3단. 우리 주님의 수난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당하셨다. 그분께서는 각자와 모두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의 옆구리로부터 흘러내린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의 샘물은 오늘날까지 계속 흐르고 있다. 십자가 받아들이기를 시몬처럼 꺼리지 마라. 많은 영혼들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 받는 것은 아무도 그들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감실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영원한 희생 제물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복되신 어머니 - 1998년 4월 4일)

주님의 기도, 성모송 3번

제4단. 마리아님의 고통을 묵상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이 고통을 받음과 같이, 나 역시 지성과 마음과 몸으로 고통을 겪었다. 내 육체의 십자가는 감추어져 있었고, 내 안에서 격렬하게 불타는 감성과 지성의 십자가들 역시 짐작될 뿐이었다. 그러나, 너희 역시 영혼들을 위하여 공을 쌓고, 세상에 은총을 가져오기 위하여 너희들의 고통도 가능한 한 숨겨져 있게 하여라.” (복되신 어머니 - 1998년 5월 2일)

주님의 기도, 성모송 3번

제5단. 하나 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께 보속합니다

지금 이 순간 거룩한 사랑에 ‘예’라고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 된 우리의 성심에 보속하는 것임을 너희가 이해하기 바란다. 매 순간을 거룩한 사랑 안에 살아가려면, 거룩한 사랑을 통한 과감한 자기 수련과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내맡김이 요구된다. 너희가 재산이나 중대한 사건들, 그 밖의 다른 커다란 일들을 희생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은 없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보속 행위다. (복되신 어머니 - 1998년 6월 6일)

주님의 기도, 성모송 3번

(이 기도가 끝나고, 하나 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 메달에 다달았을 때, 다음 기도를 마침기로서 바칩니다.)

하나 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께 바치는 기도

“오, 하나 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이시여, 당신은 모든 은총이시고 모든 자비이시며, 모든 사랑이시나이다. 제 마음을 당신 성심께 결합시키시어 저의 모든 소원이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있게 하소서. 특히 이 청원을 들어주시어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세상의 마음 안에서 하나 되신 성심의 승리를 위하여.’

저의 삶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1996년 2월 10일)

“하나 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의 거룩하고 신성한 상처들이시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 첫째 회의 -

2012년 8월 4일, 5일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서 열림

“8월 4일 토요일은 오하이오 주의 놀스 릿지빌(North Ridgeville)에 있는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서 전 세계에서 기도 그룹의 대표들이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CUH)*의 맨 첫 번째 회합에 참가하기 위해 모였던 경축일이었습니다. 이틀간 열린 이 회의는 참가자들에게 풍부한 정보와 이 회합의 전체적인 주제인 복음화를 위한 영적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이 회의는 8월 5일 일요일에 복되신 어머니의 생신 축하로 절정에 달해합니다. 기도 그룹 대표들은 하나 되신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를 전도하려는 불타는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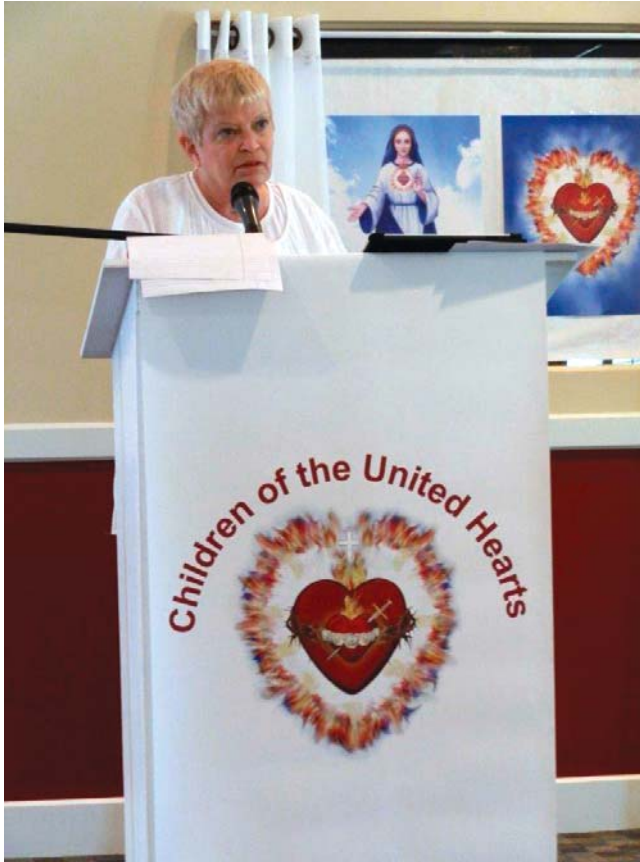
초 대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는 복되신 어머니께서 발표하심으로써 2012년 3월 4일에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되신 어머니의 6월 발표에서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CUH)의 기도 그룹 대표들의 첫 번째 모임의 날짜가 복되신 어머니의 생신이신 8월 5일이 겹치는 8월 4일과 5일로 정해졌습니다.

초대장 이 수백명의 기도의 용사와 기도 모임의 지도자 그리고 전 세계의 수호천사에게 보내졌습니다. 약 3백명이 이 초청을 받아들였으며 캐나다,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하와이, 홍콩, 한국, 멕시코, 파나마, 필리핀, 포르투갈, 푸에르토 리코, 탄자니아, 베네수엘라 와 같은 멀리 떨어진 나라들에서 참가했습니다.

회 의

회의는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 카일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의 강연자들은 이틀 동안에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곧 *세상의 마음 상태, 복음화 방법, 하나 되신 성심께 바치는 봉헌, 기도 방법, 메시지가 됨*으로써 그것을 알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면 질문을 제출했으며 나중에 연사단의 질의응답(質疑應答) 형식에서 검토(토의)되었습니다.

마지막 회기가 끝나가면서, 참가자들은 많은 언어의 기도 카드로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매일 바치는 두개의 봉헌 기도 (*하나 되신 성심께 바치는 봉헌 기도, 세상의 마음을 하나 되신 성심께 바치는 봉헌 기도*)를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웹사이트에서 기다릴 것을

충고받았습니다.

이틀 간의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참가자들은 성모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결 론

우리가 가졌던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CUH) 기도 그룹 대표들의 첫 회의를 되돌아 볼 때 참가자들이 초대된 것에 얼마나 흥분했는지, 전체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미국의 주(州)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표가 참가한 것을 알았을 때 참가자들이 얼마나 놀라워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이를 통해 거의 모든 시간대에서 매일 정오에 세상의 마음을 봉헌하는 기도를 바침으로써 전세계를 매일 봉헌기도와 짧은 묵주기도로 감쌀 수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강당에서 있었던 우리의 첫 번째 회의에 대한 모든 긍정적인 반응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반응으로 한 참가자는 많은 회의에 참가해 왔지만 이번 회의는 아주 뛰어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계획이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를 위해 계속해서 밝혀질 미래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의 모든 회원들과 함께 세상의 마음을 하나 되신 성심께 바치는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 되신 성심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이 세상의 마음을 하나 되신 성심께 바치는 봉헌 기도를 전파하기 위한 열정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

복되신 어머니 생신 축하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 회의가 끝나자 참가자들은 오후 3시 기도모임과 발현과 복되신 어머니께서 주실 메시지를 위해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 마리아 채플로 갔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이나 방문 순례객들이나 다 같이마음과 세상에서 하나 되신 성심이 승리와 가정의 일치를 위해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모임이 끝나고 곧이어 복되신 어머니의 생신 축하 행사가 카페테리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섯 판의 큰 시트 케이크와 아이스 크림이 수백명의 순례객들을 위해 준비가 되었습니다. 순례객들은 성모님의 생일 축하 카드에 애정 어린 많은 메시지들을 적었습니다. 오후가 끝나가면서 기쁨에 찬 순례객들은 마라타나 성지의 특징인 평화, 이성지전면을 덮는 평화, 성모님의 성심에서 직접오는 평화에 빠져들었습니다.

2012년 8월 5일
오후 3시 묵주기도 모임

복되신 어머니께서 빛나는 흰색의 옷을 입고 여기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오늘 너희와 함께 해서 기쁘다. 나는 너희가 이번 주말에 여기에 오라는 내 초대장을 받아들여서 기쁘다.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 된 성심의 (자녀회의) 대표가 되라는 내 초대장에도 부디 응하여라.”

“나는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와 그리고 너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에 내린다.” ■





영적 여정

하나 되신 성심의 첫째 심방의 열쇠

제 7부

‘영적 여정’ 시리즈의 **제 6부**에서, 우리는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 안으로 그리고 심방을 통해서 개인의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의 여정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에 대한 우리의 논의에 결말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에 들어가고 심방을 통해서 나아가기 위해 신뢰에 찬 내맡김 혹은 자신에 대한 자포자기 (즉 자신의 의지 혹은 지나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버리는) 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시리즈의 이번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에 들어가고 심방을 통해서 더 깊이 진척하기 위해 계속해서 증가하는 자신의 버림이나 신뢰에 찬 내맡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하나 되신 성심에 대한 계시와 심방들을 통한 개인의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에서 신뢰에 찬 내맡김의 역할에 관한 예수님의 메시지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수호자,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가 왜** 첫째 심방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에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인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99년 3월 31일**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린에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이 길은 쉽게 여행할 수 없는 어려운 길이다.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는 **자신을 버리고 욕심(사심)이 없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 이것은 **내맡김**에 기초를 둔다. **영혼이 내맡기면 내맡길수록 그는 더욱더 깊이 신성한 사랑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신성한 사랑은 새 예루살렘이다. 너희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 너희는 새 예루살렘을 혼란 속에 소용돌이치는 주변 세상 안에서 지금 바로 소유할 수 있다. 너희는 양심이 조명되기 위해 경고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 성지로 오너라. 너희가 성지를 방문할 때나 방문 후에도 짧은 시간내에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선교회 전체는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승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승리는 처음에는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세상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점을 **1999년 5월 22일** 메시지에서 되풀이하십니다. “나는 내 부름에 대한 완성, 즉 자기포기에 대해 너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왔다. 너희의 내맡김 없이는 나는 너희 안에서 내 목적과 너희의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 내맡김은 너희가 무엇을 포기하거나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포기는 너희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라는 내 부름이다. 너희 의지는 지금 이 순간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 정해진다. 이것이 **자기포기에 대한 내 부름이 즉시 지금 이 순간 거룩한 사랑에 완전히 순종하라는 내 부름이기도한 이유다.**”

“**자기포기는 내 성심과 하느님의 섭리의 문을 여는 열쇠다.** 종종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내가 베푸는 은혜를 보지 못한다. 종종 너희가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좋은 것이 아니며 너희의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베푸는 은혜, 내 신성한 뜻은 직조공인 내가 너희의 잉태 때에 짜기 시작한 훌륭한 태피스트리(직물)과 같다. 너희의 온 생애를 통해 나는 너희 구원의 걸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각 실을 제자리에 놓는 디자인을 한다. 너희들이 나에게 내맡기기를 거부할 때, 너희는 그만큼의 실을 흐트러지게 잡아당긴다. 그러면, 예술가인 나는 모든 것이 다 잘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태피스트리 전체를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내맡길 때, 마지막 결과를 훨씬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너희는 내 은총을 알고 내 계획인 내 은혜에 협조하게 된다. 그 디자인은 나의 최고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

“**너희의 자기포기는 거룩함의 계단에 발을 딛고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너희의 내맡김은 내 은총의 꽃다발의 상쾌한 향기를 맡게 한다. 너희의 내맡김 없이는 너희는 마치 거장 목수의 손에 들려진 부러진

연장과 같다. 목수는 이런 도구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이것을 옆으로 밀어놓고 더 좋은 것을 찾아낸다. 이와 같이, 나는 너희가 나에게 완전히 내맡기지 않는 한 너희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다.”

“너희가 내맡길 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안내하고, 제공하며, 보호하는 것을 신뢰한다고 나에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거역할 수 없다. 내 사랑은 이런 영혼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는 그와 일치한다. 이것이 **너희의 신뢰가 모든 것**이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다. **너희의 신뢰는 너희의 내맡김이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하느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계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의지와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하느님의 뜻인) 지금 이 순간에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완전한 내맡김은 하느님의 계획을 성취합니다.

1999년 7월 5일에 모든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이점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자비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온다. 이 사랑의 불을 통해 나는 세상의 마음을 회개시키기 위해 왔다. 회개를 위한 유일한 길은 거룩한 사랑을 통하는 것이다. 우주의 중심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의지에 반해서 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마음이 거룩한 사랑으로 부르시는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께 **내맡기기를** 권고하기 위해 왔다.”

“만약 마음이 이에 응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연과 공기, 물과 지상, 그분의 권능아래에서 통치를 받는 모든 사물들에 평화와 조화를 회복할 것이다. 지금 실정으로는 인류가 사랑의 길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사탄에게 많은 것이 포기되었다.”

“내 자녀들은 하느님의 섭리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들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주기도하지만 거두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하여라. 나는

지원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돌아올 때 나는
거룩한 사랑의 두가지 위대한 계명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찾을 것이다.”

“오늘 나는 내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있다. 너희가 지금 이 순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면, 너희는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에 적합하고 있다.”

다음의 메시지들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신뢰에
찬 자포자기 혹은 자신의 내맡김이 우리
영혼 안에서 그분의 은총과 성덕이 활동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보여주십니다:
1999년 7월 8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은 거룩함을 그들
마음으로가 아니고 지성으로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왔다.
이것이 사랑의 의미다. 사랑은 먼저 너희의
마음속에, 그 다음에 너희 주변의 세상에
있어야 한다. 거룩한 사랑이 너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때에 너희는 너희의 의지를 내게
내맡긴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너희를
은총과 성덕으로 채워줄 수 있다. 이것은
너희 자신이 원하는 것이 없게 된다는
의미다.”

“너희 자신을 온전히 비우지 않으면 성덕을
본받거나 거룩한 사람들과의 사귀를
추구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희는
거룩하고 덕이 있기를 원할 수 있지만, 이런
은총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자포자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1999년 7월 9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성체성심이
우주의 중심이다. 그러나 이 성심은 영혼이
거룩한 사랑에 내맡기지 않는 한 어떤 하나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 내맡김의 정도가
성화의 정도를 결정한다. 참으로 **자포자기는
구원의 열쇠이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 자신으로 가득차게 하는
영혼들은 나를 사랑할 수 없거나 나를 신뢰할
수 없거나 나를 알수도 없다. 자기만을 위한
사랑은 권력과 돈, 야심과 영예, 호색과
탐욕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다. 이 모든 것은
사탄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영혼이 거룩한 사랑에 내맡기면,
그는 그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영혼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치
않다. 이런 영혼은 각광 받기를 싫어하고
영예에 관심이 없다. 그는 자신이나 자기의
안건들을 내세우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나의

분부를 기다린다. 만일 나를 위해 어떤 것을
성취하면, 인정을 기대하지 않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예수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신뢰에 찬
자기포기나 자포자기를 실천하여 자신의
의지와 지나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버리는
영혼은 신성한 사랑에 그 자신을 봉헌하는
영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999년 10월 11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너희에게 **신성한
사랑에게 진정으로 봉헌하는 영혼**에 대해
묘사하고 싶다. 누차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봉헌에 따른 은총들은 많으나,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적다.”

“**신성한 사랑을 통하여 나에게 봉헌한 그러한
영혼은 사랑의 순교자**가 되었다. 그는 필요에
따라 그러한 특권에 동참하면서 자기와
세상을 버렸다. 그 영혼은 모든 것을 신성한
사랑, 그리스도의 성심에 양도했다. 그는
다만 나를 더사랑하고 나를 더기쁘게하고
나와 일치하기만을 추구한다. **신성한 사랑에
진정으로 봉헌한 영혼은 각 현순간 그의
의지를 하느님의 뜻에 내맡기는 기회로
인식한다.**”

“그 영혼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사랑의 순교자다. 그는 나의
기쁨을 제외한 다른 기쁨은 구하지 않는다.
그는 내가 그를 위해 선택하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은 따라가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버리고 내가 그를 통해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산다.”

“오늘날 나와 이런 일치를 바라기라도 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

그런 다음 **1999년 10월 16일**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성녀 축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신성한 사랑에 자신을 봉헌한
영혼들에게** 밝히신 그분의 신성한 성심의
심방을 통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 신성한 사랑인
내 성심중의 성심속에는 많은 심방이 있다.
**각 심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자기포기를
통해서 열린다.** 각 입구는 영혼이 가장 깊고
가장 내밀한 심방에 도달하여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고 일치할 때까지 너희를 신성한
사랑에 더 깊이, 곧 내 성심 안으로 더 깊이
인도한다. 그 영혼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
어떠한 것도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오직
소수만이 이 심방에 도달한다.”

(‘영적 여정’ 시리즈의 뒷부분에서는 **1999년**

10월 16일과 **10월 17일**에 주어진 메시지와
또한 다른 메시지들과 함께 예수님의 신성한
성심과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에 대한
게시가 자세히 탐구될 것입니다.)

자포자기(self-abandonment)나 자기포기
(자신을 내맡김, self-surrender)에 관해서
1999년 10월 17일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뜻에 복종하거나
따르는 것에는 정도가 있다. 이것이 내
성심의 심방들로 들어가는 ‘문들’이 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문은 하느님의 뜻이지만
각 심방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더 큰 내맡김과
헌신을 요구한다.”

이 메시지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에 향한 신뢰에 찬
자기포기나 자포자기가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1999년 12월 31일에 모린(Maureen)은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 앞에 떠있는 **커다란
열쇠**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이 열쇠는 너의 자유의지를
나타낸다. 그것은 내 성심의 모든 심방을
여는 바깥문의 열쇠다. 처음에는 아마도
자물쇠 속에서 열쇠를 돌리기 힘들 것이며,
또한 거룩한 사랑인 첫째 심방의 입구가
장애물에 부딪칠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이
어려움을 나에게 맡길 때, 내 은혜의 손길에
의해 그 장애물은 제거된다.”

“영혼이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나에게 모든 것을 **내맡길** 수
있을 때 나는 활동 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하느님의 뜻 밖에서는 하나 된 성심의
안식처로 들어가거나 내 성심의 심방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이것은 하나 된
성심이 하느님의 뜻에 의해 포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0년 9월 4일 신성한 사랑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마음의
회개로 불림받는 순간, 그는 내 어머니의
성심이며 거룩한 사랑인 첫째 심방의 입구에
선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여정이 무모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순한 마음에게는
이것은 매우 귀중한 길이다.”

“내 어머니께서는 이 회개와 구원의 입구에
서 있는 영혼들을 만나신다. 그분은 영혼들이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첫째 입구로 들어가는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그들에게 내리신다. 실로 첫째
심방으로 가는 입구는 이 영적 여정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2000년 10월 16일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심의 심방들에 대한 계시 1주년 기념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드러낼 모든 것은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열쇠** 즉, 신앙의 수호자이신 마리아의 기도로 시작했다. 이 단순한 기도는 영혼이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인**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첫째 심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다. 믿음이 보호되고 사탄이 파괴됨에 따라, 영혼은 [신뢰에 찬 내맡김으로] 하나 된 성심의 첫째 심방인 거룩한 사랑에 그의 마음을 열게된다.”

“내 성심의 가장 깊은 심방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신뢰에 찬 내맡김**이다. 이것 없이는

영혼이 내 성심중의 성심으로 더 깊이 들어올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있는 **신뢰의 깊이**가 또한 거룩함의 깊이라는 것을 이해하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영혼은 나를 신뢰할 수 없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 영혼은 자신의 의지를 나에게 내맡길 수 없다. 이것은 이처럼 간단하면서도 복잡하다.”

“영적 여정” 시리즈의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예수님과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의심치 않고 내맡기게 되며, 그리고 어떻게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인 첫째 심방으로** 들어가는 열쇠인 신앙의 수호자이신 **마리아님께** 드리는 기도¹에 의해 받는 은총으로 더

쉽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검토할 것입니다. 계속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 되신 성심의 여러 심방들이 어떻게 개인의 거룩함과 성화에 이르는 **실행 계획**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들을 논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

거룩한 사랑의 심방으로 들어가는 열쇠

“신앙의 수호자이시며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인 마리아여 우리를 도우러 오소서.”

(예수님 -2006년 2월 10일)

무엇이 겸손한 사랑인가?

2012년 5월 16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영적 교만의 반대는 겸손한 사랑입니다. 겸손한 사랑은 자신을 거룩함이 조금도 없고 은총을 받을 자격이 거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모든 선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며 하느님께서 모든 은총의 근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만 하느님 손의 도구가 되기 위해 겸손하게 노력할 뿐입니다. 겸손한 사랑은 인내심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잘못과 성격상의 결함을 겸손히 견디어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을 때에 겸손한 사랑은 자비롭고 부드럽게 (잘못과 결함을) 정정합니다.”

“겸손한 사랑 안에서 영혼은 항상 용서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그가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겸손의 정신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죄악을 용서합니다.”

“겸손한 사랑은 절대로 파괴하지 않고 항상 쌓아 올립니다. 겸손한 사랑은 절대로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일치시킵니다.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의 의견을 유일한 의견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랑은 진리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겸손한 사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Holy Love Ministries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37137 Butternut Ridge Road
North Ridgeville, OH 44039

성 토마스 아퀴나스 교육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6
메시지 신청: 440-327-5822
기도 신청: 440-327-8039
기도 신청 이-메일: prayers@holyllove.org
선교회 연락: mamshl@holyl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love.org
웹사이트: www.holyllove.org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교회일치 운동 평신도 사도직입니다.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 교리서 821조에서 교회일치운동에 대해 말한 “기도는 마음을 바꾸고 삶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일치를 위한 공동기도나 개인기도는 모두 전체 교회일치운동의 영혼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 은총으로 영적 교회 일치운동으로 불립니다.”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모님과 예수님 그리고 여러 성인들이 이 성지에 오십니다. 그리고 주어진 메시지들은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인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을 통해 영혼을 개인의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된 언어입니다.
순례자들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초청합니다.
이 성지에서는 천상으로부터
평화가 제공됩니다.

자원 봉사, 의견과 제안

자원 봉사자 - 항상 필요합니다.

봉사 희망 연락처: volunteers@holyllove.org

뉴스 레터 신청: newslettereditor@holyllove.org

의견과 제안을
환영합니다. newslettereditor@holyllove.org

행사나 활동에
대한 정보: www.holyllove.org
www.holyllovekorean.org

하나 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을 여러분께
건네어 드립니다.